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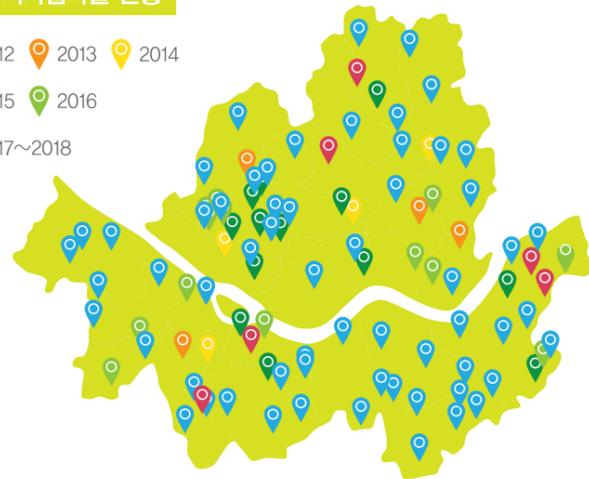
서울 에너지 전환의 리더 에너지자립마을



상업시설과 가정이 모인 곳이 마을입니다.
총에너지 중 57%, 총전력 중 88%를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에너지 독립도시가 되려면
 마을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2017년 현재 80개 마을이 에너지자립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8년 100개의 마을이 에너지자립마을로 바뀝니다.
에너지 전환도시 서울, 에너지자립마을이 만들어갑니다.

에너지자립마을 현황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2018



에너지자립마을은 주민들이 마을을 무대로 에너지 자립사업을 펼치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2월 사업 공고(서울시) ▶ 사업제안서 제출 ▶ 심사·선정 ▶
 마을별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 사업 ▶ 평가를 받는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이며 최대 3년간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문의 다산콜 ☎ 120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방사능 사고 걱정되는 **원전 2기**를 줄이고
 미세먼지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멈춰 세우고
819만톤의 탄소를 줄였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5년 성과(2012.4 ~ 2016.12)



스스로 절약 발전소가 되어
 지붕과 창문을 에너지 농토로 바꾼 사람들.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이
 서울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의 3+1 절전비법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 효율 높이기



에너지자립마을의 친환경에너지 생산법



'에너지자립마을'의 미래



에너지자립마을은 '3+1절전비법'으로 12%가 넘는 전기료를 줄였습니다.

하나, 냉동실은 -18~17℃로 냉장실은 4~5℃로 맞추고,

둘, HDTV를 절전모드로 바꾸고,

셋,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에어컨 코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넷, 외출하거나 잠들기 전 셋톱박스를 껐습니다.

'3+1절전비법'으로 매달 에코영수증을 받아보세요.



1998세대의 석관두산 에너지자립마을은 '3+1절전비법'으로 매달 전기료를 12% 줄였습니다.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뜻을 모은 공동체의 힘! 에너지자립마을의 힘입니다.

에어컨 냉기 · 보일러 열기가 줄줄 새는 낡은 건물의 에너지 낭비!

에너지자립마을들은 1.45%의 고정금리로 8년 동안 균등 상환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지원을 받아 집을 수리했습니다. 주택은 1,500만원 건물은 10억원까지 빌려줍니다.

주택 난방에너지 필요량 (단위 : kWh/m² · a)



단열하면 난방에너지의 82%를 아낄 수 있어요!

조명도 고효율로 바꿔보세요! 서울시는 공동주택 조명을 LED로 바꿀 때 단지별로 1,000만 원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바꾼 지 8개월 만에 비용을 뽑고 매년 2억원씩 공동전기료를 아끼는 아파트도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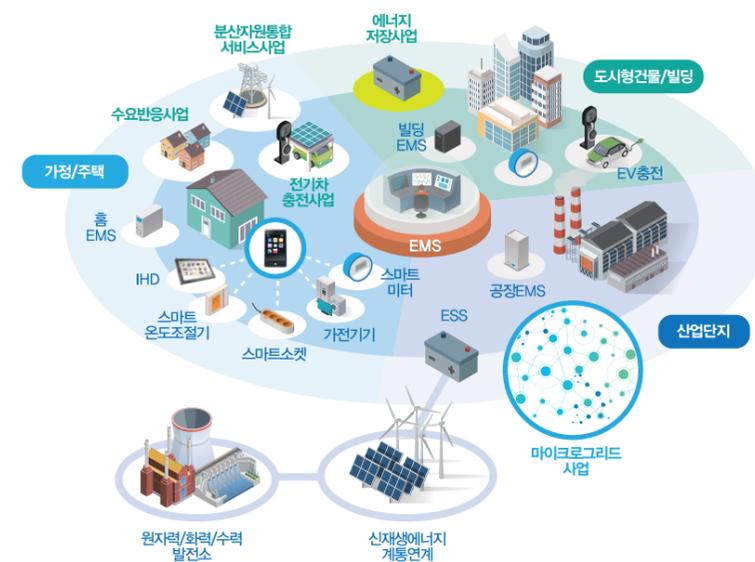
에너지자립마을들은 햇빛에너지 농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설치비 지원을 받아 베란다에, 옥상과 지붕에 크고 작은 햇빛발전소를 일궈냈습니다.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이 일상의 풍경이 됩니다.



'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 45가구는 지붕마다 3kW 햇빛발전소를 세워 매달 전기료를 980원만 냅니다. '거여단지에너지자립마을'은 아파트 옥상을 '태양광대여사업' 부지로 빌려주고 공동전기료를 연간 3천만원씩 절약하고 있습니다. '홍릉동부에너지자립마을' 아파트 전가구가 미니태양광을 베란다에 달고 전기료를 10% 이상 줄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은 모두 에너지 농부입니다.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다른 곳 전력사정이 뻑뻑할 때 보내주고 부족할 때만 받아쓰는 스마트한 '서울형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자립마을이 만들어갑니다.



▲큰 건물 옥상에 대형 햇빛발전소 ▲가정의 베란다와 옥상에 미니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열병합발전소 ▲지역별 에너지저장장치 ▲가정마다 에너지절약사물인터넷(IOT)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곳에 달린 지능형 계량기가 전력망에 연결된 '마이크로 그리드'가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의 미래를 그려갑니다.